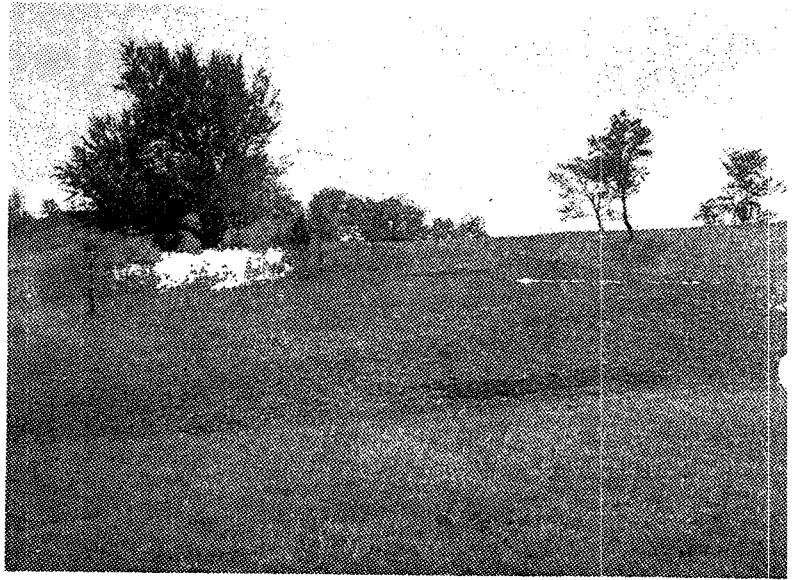


자연환경



노웅희/서울대학교수·法博·본보편집위원

인간환경 (human environment)이란 “인간을 둘러싼 여러가지 자연적 요소와 인간이 문화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유형·무형의 인공적 요소의 총체”라고 개념지을 수 있겠는데 이를 세분하면 자연환경, 인공시설환경, 사회환경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연환경이란 대기, 물, 녹지, 기후경관 등으로 구성되는 우리가 흔히 보전의 대상으로 삼는 좁은 의미의 환경을 말하고, 인공시설환경이란 생산, 소비, 거주등 제반 인간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인공적 시설에 관한 환경으로 통상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환경이란 사회제도나 문화에 관련된 인간의 인문사회적 여건을 포함하는 무형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이 지구상 생물의 한 종으로서 자연의 지배를 받음과 동시에 자연의 도전에 대한 극복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흔히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킨다고 함은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편리하고 능률적인 인공시설환경을 갖추고 개개인의 자아 실현이 가능한 사회환경을 가꾸어 가는 인간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러한 세가지 환경을 모두 증진시킬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환경과 인공시설환경의 개선이 Trade off 관계에 서게될 때가 종종 있는데 개발이나 보전이나의 양자택일

혹은 양자의 조화의 문제는 그 사회환경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어쨌든 생활 및 생산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일부를 개발해야 하고 그 시설의 운용을 위해서 자연환경의 일부인 자원의 채취와 자연환경의 오염이 불가피한 바 이들은 그 영향이 크든 적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어차피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의 이용이 불가피 하며 생태계가 가지는 항상성·재생성·자정력 등의 특징으로 인해 인간의 적당하고 분별력 있는 개발은 생태계 속에서 인류의 계속적인 존재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는 오늘날까지 무조건적인 자연의 정복을 통해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至高善인양

“인간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싼 여러가지 자연적 요소와 인간이 문화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인공적요소의 총체를 말한다

행동해 왔고, 인류문명의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고 성장의 항구적 지속이 가능하다는 소위 상승기대혁명(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 속에서 인간개체군의 존속을 가능케 하고, 種으로서의 번영을 약속하는 생태계의 일부를 개발·변형시켜 왔다. 이로 인해 現下의 인간이 조성한 인공적시설환경의 복잡·精巧性은 인간의 의지로는 그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증식성을 갖게 되었고, 변형되고 교란된 자연환경의 반작용 역시 제어 가능한 범위 밖에 놓이므로서 생태계에서의 인간개체군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여 무작정 개발만을 감행하는 현대인의 경우를 파우스트형 인간(Faustian man)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조성해 놓은 현대의 위기는 곧 파우스트형후군(Faustian man syndrome)이라 일컬어지는 정신적 허약성 물질적 풍요속의 불만의 증대와, 비인간화 즉 물화성향(propensity for reification)의 진행을

가속화 하므로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위와 같은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인간이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간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채드윅(Edwin Chadwick) “영국노동자의 보건상태에 관한 보고” 이후 보건위생법(public wealth act:1848)이 제정되고 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개발과 보전”의 문제에 관련하여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1950 년대의 세계는 인구의 도시화물결에 휩쓸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공적 시설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60 년대의 남북문제는 빈곤의 탈피를 위한 UN의 개발년대(development decade)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세계는 과다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에 관심을 보여 1971년 “로마클럽의 보고서(The Limits to Growth)”는 자원고갈·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 함으로써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세계 143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UN인간환경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원칙하에 환경권의 법문화, 환경행정기구의 설치 및 환경기술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노력을 강화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이의 실천을 위해 4년뒤인 1976년 5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UN인간거주회의(The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가 개최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1980년 9월 1일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의 초청으로 로마에서 “인구와 도시미래에 관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the Urban Future)”를 개최하고 인구와 도시미래에 관한 “로마선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세계가 건전한 인간定住環境의 조성을 위해 인공환경의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조화시켜 계획적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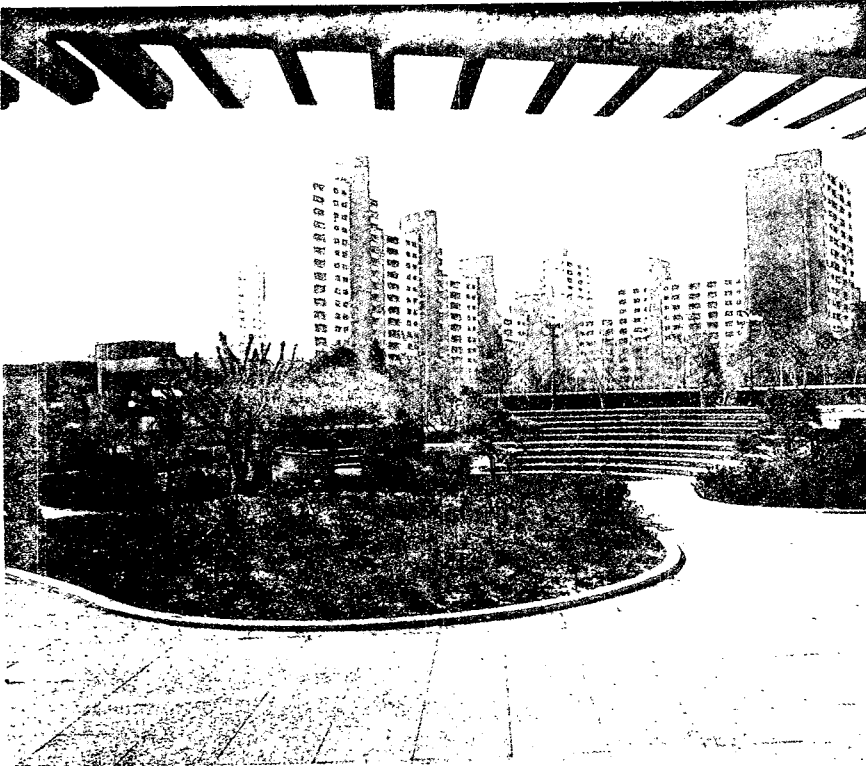
발과 보전의 조화에 초점을 둔 인간환경의 관리 방향은 새로운 개발방식에서의 접근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라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개발방식이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적개발(eco-development)을 의미하는데 UN환경계획위원회(UNEP)에 의해 제안된 이 방식은 선진국은 과잉개발에 대해 반성하여 역개발(developing)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반개발(semi developing)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함을 말한다. 반개발이란 일반적으로 공업화 보다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농업중심의 개발을 의미하는 바 이는 어떤 지역의 개발이 그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맞도록 적합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혹은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다음으로 보전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개발이 가져올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

nement impact assessment)와 개인이나 기업등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를 유도하는 배출부과금제도 및 기타 직간접적 규제 수단인 오염물 자가측정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 예는 수없이 많다. 여기에서 새삼스레 고도의 기술(high technology)에 의한 개발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근시안적 환경관에 입각한 개발계획이 부분적으로는 인공적 시설환경의 개선에 기여를 하였지만,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서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온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소련의 원조에 의한 애스완 하이 댐(Aswan High Dam)은 댐건설로 인한 관개로 나일강 범람원에 1모작에서 순환4모작을 가능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댐건설기간에 증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생산을 할 수 없었으므로 차라리 그에 대한 자본이 인구조절이나 농업개발에 투입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기생충학자들에 따르면 다모작법으로의 변화는 기생충 질환인 빌



“
 하나뿐인
 지구
 라는 슬로건
 아래 UN인간
 환경선언
 ”

하르지아(bilharzia)를 일으키는 디스토마의 중간숙주인 달팽이의 번식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며, 나일강 수류의 변화는 東지중해의 어획고를 감소시켰으며, 또한 댐건설로 인해 예전까지 나일강 범람에 의해 나일 델타지역에 퇴적되었던 영양분의 공급을 막으므로 4모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기비료를 사용할 것이므로 더욱 심각한 생태적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위 다목적 댐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공공투자분석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거쳐 우리에게 부담될 사회적 비용(social cost)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비용의 과소평가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근시안적 개발을 가져올 소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경제 분석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철저한 환경영향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서구의 개발모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개발철학에 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얼마전 “이산가족찾기운동”이 방영되고 있을 때의 한 모녀의 상봉은 조국분단의 아픔외에 또다른 서글픔을 느끼게 해준 일이 있었다. 6.25 동란때 잃어버린 딸은 지방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과 미국에 이민해 살던중 TV위성중계를 통해 서로가 혈육임을 확인하였을 때 아나운서가 누가 찾아가겠느냐? 아무래도 어머니가 한국에 오실 수 밖에 없으리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나는 거기가서는 못산다”라고 하여 우리를 잠시 당혹하게 하였다. 곧 이어지는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공기가 탁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30년 이별의 한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조국의 환경이 그 어머니의 귀국을 망설이게 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성애가 부족한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20여년전 국민학교 미술수업시간에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공장을 즐겨 그렸고 당시에 보기에 드물었던 승용차의 가솔린배기가스를 신기한 향내로 생각하고 차의 꼬무니를 따라 다니며 냄새를 맡던 세대가 이제는 그런 승용차의 주인이 되어 스스럼 없이 매연을 방출하기도 하고 또 차를 갖지못한 사람들은 돈많은 자들의 고급승용차에서 내뿜는 매연을 왜 우리가 마셔야 하는가? 그러한 매연을 즐기는데 왜 우리가 稅부담을 해야하는가? 하며 불평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이상의 두 이야기는 우리의 환경실태와 환경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진행기를 거쳐 정치와 사회발전에 주력해야 할 국가발전후행기에 들어서 있는 우리의 현재는 프리드만(J. Friedmann)이 말한 것처럼 국가발전이념이 능률성의 추구에서 형평성 및 환경보전의 추구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30년 이별의 한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조국의 환경이 그 어머니의 귀국을 망설이게 한다는 사실로.....

앞에서 언급한대로 인공환경의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가치가 어느정도 상치(trade off)되는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는 것은 한 국가나 지역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다시 제도적 환경과 정신문화적 환경으로 구분된다고 볼 때에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제도적 환경은 어느정도 조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개발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등이 그것이다. 이제 시급한 것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전적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신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북미식의 개발모델을 수

용하여 그들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근대화이고 발전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장 우리다운 모습을 추구하고 전통을 보존·啓發하는 것이 세계화라는 인식을 갖고 각 지역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모델에서 벗어나 자기다운 개성을 지니도록 독특한 지방문화와 地緣産業의 개발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세계의 역사는 집권화와 분권화, 계몽주의정신과 낭만주의정신이 반복·교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에 충실하는 것도 올바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다음으로 개발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의 민주화·인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의 개발행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간환경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환경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관계가 있다.

정은 주민을 행정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개발계획도 단순히 목표-수단의 연쇄논리에 입각한 수단적 합리성에 토대를 둔 수단적 계획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리적 종합적 계획이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방식은 다분히 하향적(top down)인 것이어서 인간적·사회적인 면이 소홀해지며 관료적 권위주의적이기 쉽고 계

획이 주민을 물적 또는 양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기술주의적 발상을 띄게 된다. 이는 경제적 능률성이 개발의 가치를 결정하게 됨으로 환경보전, 전통보존, 인간존중, 생활우선 등은 제 2차적인 것이 되기 쉽고 보전보다는 다분히 개발지향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발의 목표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가치판단을 거쳐 상향적(bottom up)으로 결정될 때에 앞서 언급한 몇가지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개발대상체 즉 주민들을 목적지향적 체제로 보고 개발결과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며, 개발계획관도 종래의 수단적 계획관에서 탈피하여 규범적 계획관을 확립함으로써 인간주의적 접근법(humanistic approach)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개발방식이 되도록 유도 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간환경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환경은 다시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지우는 상호결정적 관계에 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자애로운 선조로 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어느 대중가수의 노랫말처럼 어제 우리가 버린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

주소 변경시는 꼭 알려주십시오.

회원·회원사·명예회원 및 협회보나 명예회원보를 받아보시는 여러분께선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본협회 홍보부에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의 12층
(지방의 경우 본협회지부에 연락)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